# 도서 대출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분석

2024년 12월 01일

컴퓨터정보공학과

팀원

고태경(202244042)



본 과제(결과물)는 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빅데이터 처리 교과목의 프로젝트 보고서 입니다.

# 목 차

1.	프로젝트 개요 및 목표										
2.	데이터 수집										
3.	프로젝트 범위										
4.	프로젝트 과정										
	4-1. 지역별 도서 대출 수 알아내기										
	4-2. 전국 도서관 분포 현황										
	4-3. 지역별 도서관 한 곳당 평균 대출 수										
	4-4. 지역별 도서관 한 곳당 평균 대출 수와 주변 상권과 비교 …										
	4-5. 지역별 도서관 한 곳당 평균 대출 수와 접근성과의 상관 관계										
	4-6. 디지털 역세권인지에 따른 도서 대출량										
5.	결론										
6.	출처										
파르제트 기침 <b>법 조</b> 소											

https://github.com/taegyeong0225/bigdata-processing

# 1. 프로젝트 개요 및 목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최근 10년간 종합 독서율 추이는 계속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인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2013~2023)> (출처 : 2023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2p)

이와 함께, 최근에는 MZ 세대의 문해력 부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광복절 당시 월요일인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흘 연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4일 연휴'로 오해하거나, 왜 '3일 연휴'를 '사흘'로 표현했는지 묻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웹툰 작가 변덕이 사인회 예약 안내문에서 사용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본래 뜻인 '매우 깊고 간절하다'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로 해석한 사례가 있었다.

2024년 10월 7일 발표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29.2%가 '독서 부족'을 꼽았다. 또한, 문해력 개선 방안으로는 32.4%가 '독서활동 강화'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4.10.07.), 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

이처럼 문해력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서를 장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4월 22일에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며, 독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책을 접하기 가장 쉬운 장소 중 하나는 도서관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지역별 전국 도서관 도서 대출 수 데이터와 다른 공공 데이터를 추가로 결합하여 도서 대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결과로 대출량 및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앞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도서관의 수와 도서 대출 수는 비례할 것이다.

도서관이 많은 지역은 도서관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서 대출 수가 정비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가설 2. 도서 대출 수는 학원 같은 교육 시설 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독서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며, 도서 대출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 3. 문화시설 수가 많은 곳일 수록 도서 대출 수가 높을 것이다.

문화 생활, 독서 모두 취미 생활 중 하나이므로, 문화 시설 수가 많을수록 도서 대출량이 높을 것이다.

#### 가설 4. 접근성이 높을 수록 도서 대출 수가 높을 것이다.

도서관이 주변에 없거나 가기 힘들다면 도서 대출을 하기가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수록 도서 대출 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2. 데이터 수집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 도담(2022 제1호), 지역별 대출건수 (2022.01~2022.05)
- <u>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csv</u> 2024-08-16까지의 데이터 기준 일자를 가진 데이터가 있음
- <u>행정경계(시도)</u> 국토지리정보원 연속수치지형도 행정경계 데이터
- 국토교통부\_전국 버스정류장 위치정보
- 디지털 문화역세권 (20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상가(상권)정보\_20220630

# 3. 프로젝트 범위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가공/정제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시각화 -> 분석 결과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은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외부 환경과 도서 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른 독서율 상승 방안을 제시

### 4. 프로젝트 과정

1. 지역별 도서 대출 수 알아내기

데이터 전처리

'도담(2022 제1호)'를 통해 '지역별 도서 대출 수 데이터.csv'를 얻는다.

```
# N right reduction and sale process and series and series are reductively red
```

#### 데이터 전처리

- '월', '합계' 열은 필요없는 열이므로 삭제한다.
- '지역별 도서 대출 수'를 구하기 위해. 열별 합계를 구해 5번째 행에 추가한다.
- 5번째 행(지역별 합계가 구해진 행)만 남긴 데이터를 저장한다.

```
# 첫 영('월'), 마지막 열('합게') 삭제

df = df.drop(columns=['월','합계']) # 없는 열은 무시)

# 열별 함계 계산

total_row = df.sum(axis=0)

# 월별 함계를 나타내는 5번째 행만 남기기

df = df.iloc[[4]].reset_index(drop=True)

# 결과 확인

print(df)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0 2022531 562069 489610 317549 196921 248177 152280 169920 3033461

강원 충복 충남 전복 전남 경복 경남 제주
0 159736 164709 318730 198123 181516 344051 478580 138185
```

- 다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때, 통일성을 주기 위해 지역과 관련된 column명은 공식적인 현재 행정명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 세료문 열 이름 리스트
new_columns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연환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생산물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성복도',
'충청복도', '충청남도', '전복복됐자치도', '건라남도', '강상복도',
'경상남도', '재주특별자치도']
# 열 이름 변경
df.columns = new_columns
# 결작 확인
print(df)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연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불신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0 2822531 562869 489618 317549 196921 248177 152288 169928 3033461

    강인특별자치도 충행복도 충행남도 전복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강상복도 강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0 159736 164789 318738 198123 181516 344051 478580 138185
```

- 지도에 시각화 하기 위해 melt 함수를 이용해 wide format을 long format으로 변환한다.

```
# Wide Format -> Long Format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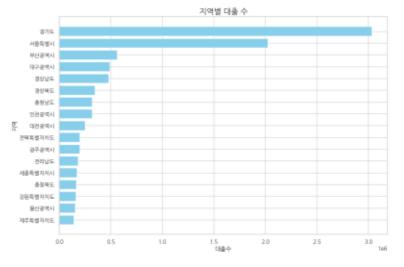
df_long = df.melt(var_name='지역', value_name='대출수')
# 대출수 기준으로 내용차는 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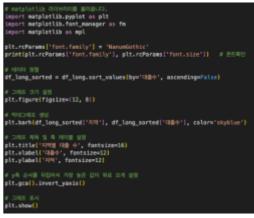
df_long = df_long.sort_values(by='대출수', ascending=False).reset_index(drop=True)
# 경기 확인
print(df_long)

지역 대출수
8 경기도 3033461
1 서울특별시 2022531
2 부산항에서 527069
3 대구광역시 489618
4 경상되도 348951
6 출항되도 318730
7 연천광에시 317549
8 대전광액시 248177
9 전체용에게시조 198123
18 경우에시 18516
12 세움특별지치도 181516
12 세움특별지치도 159736
14 강전해도 152786
15 출산함도 159736
15 출산광에시 152288
16 지주목에지치도 159736
16 지주목에지치도 159736
17 전체용에게지도 159736
18 전공에서 152288
18 지주목에지치도 159736
```

#### 데이터 시각화

맷플롯립을 이용하여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특별시 순으로 대출량이 많으며, 수도권역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시도 행정 구분 경계 데이터를 통해 지도로 시각화 해보았다.

#### 데이터 수집

디지털 트윈 국토 사이트에서 얻은 N3A\_G001000.shp 데이터를 불러온다.

#### 데이터 전처리

'NAME'으로 저장되어 있는 shp 파일의 지역명 부분을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변경한다.

```
# NAME 열의 고유 값 출력
unique_names = gdf['NAME'].unique()
print(unique_names)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행정구역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https://overseas.mofa.go.kr/cn-wuhan-ko/brd/m\_22785/view.do?seq=1347269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2023년 6월 11일, 628년 만에 기존의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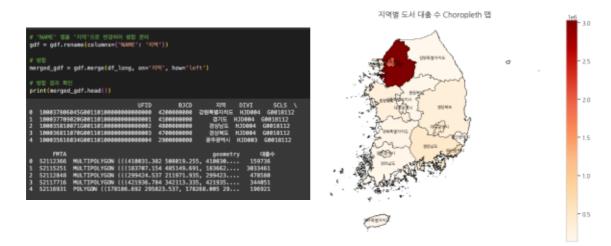
```
# NAME 열 값 수정
gdf['NAME'] = gdf['NAME'].replace({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복도': '전복특별자치도',
})

# 수정된 결과 확인
print(gdf['NAME'].unique())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지'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 데이터 시각화

NAME 열을 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별 도서 대출량 데이터와 결합 후 choropleth 맵으로 시각화를 진행한다.



#### 2. 전국 도서관 분포 현황

#### 데이터 수집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수집한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csv'를 활용한다.



####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null 값이 있는 행은 존재하지 않아 결측치 처리는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7개인데 19개로 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unique_count = national_libraries['서도명'].nunique()
print("행정구역 것수: ", unique_count)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총 17개이나, 19개로 세어정
행정구역 것수: 19

national_libraries['시도명'].unique()
array(['경기도', '서울특별시', '전체특별자치도', '경상복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주광역시', '전라목보자치도', '강산로'], dtype=object)
```

이것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전 이름인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특별자치도 이름으로 통일하였다.

```
national_libraries['시도영'] = national_libraries['시도영'].replace({
    '전라복도': '전복특별자치도',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 전처리원 결과 하인
print(national_libraries['시도명'].unique())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복특별자치도' '경상복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원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 데이터 시각화

시도명으로 묶어 시도별 전국 도서관 개수를 확인하였다, 대출 도서 수와 마찬가지로 막대그래프와 choropleth 맵으로 시각화를 진행했다.



경상남도는 행정구역 중 도서관이 많은 축에 속하지만 도서대출 수는 낮은 편이다.

#### 3. 지역별 도서관 한 곳당 평균 대출 수

지역별 도서관 수와 도서 대출 수가 정비례하지 않음에 따라 (도서 대출 수 / 도서 관 수)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Import pandss as pd

# Library_coast_by_region# ff_long_serted EU (NAME 7828)

# reged_df = pd.merge(df_long_serted, library_coast_by_region, left_on='NAM', right_see='ASM', how='inner')

# ***LAP B EU H3 GB +* *AU
## reged_df('SAM') #E GB +* *AU
## reged_df('SAM') #E GB +* *AU
## reged_df('SAM') #E GB +* *AU
## reged_df('SAM', 'GB+', 'SAM +*, 'SAM +*', 'SA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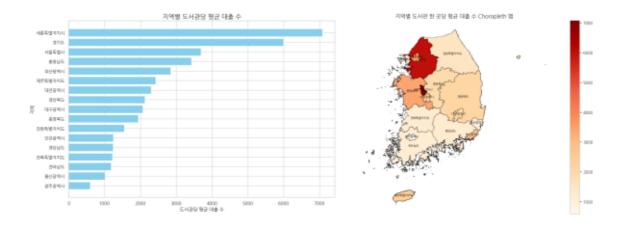
# 20 GB BG
## reged_long_per_library = merged_df('SAM', 'GB+', 'SAM +*', 'SAM +*', 'SAM +*')

# subrage_long_per_library = merged_df('SAM', 'GB+', 'SAM +*', 'SAM +*', 'SA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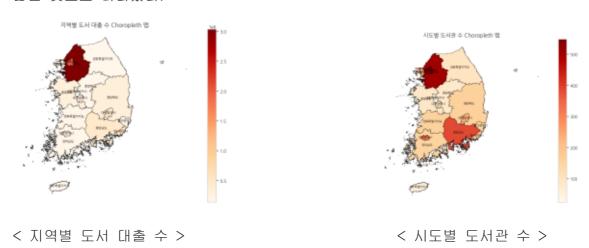
# subrage_long_per_library = merged_df('SAM', 'GB+', 'SAM +*', 'SAM +*', 'SAM +*', 'SAM +*')

# subrage_long_per_library = merged_df('SAM', 'GB+', 'SAM +*', 'SAM +*', 'SAM +*', 'SAM +*', 'SAM +*')

# subrage_long_per_library = merged_df('SAM', 'GB+', 'SAM +*', 'SAM +*',
```



도서 대출 수를 도서관 수로 나누니, 세종특별시가 한 도서관 당 평균 대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수와 도서 대출 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완전한 비례 관계는 아니다.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도서관 수와 대출 수 모두 상위권에 속한다.
-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 도서관 수는 많지만 대출 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가장 적은 도서관 수(24개)를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는 가장 높다(7,080권).

#### 4. 지역별 도서관 한 곳당 평균 대출 수와 주변 상권과 비교

#### 데이터 수집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csv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상가(상권) 정보 20220630을 다운로드하여 진행한다.

# EF fold #11_ # COMM # SS prin	or os so  co por so  c																				
871	6/13 후에 되시																				
comerce_dats.head()																					
	8112F(B) \$	489	쾧	690648 425	SEPRESENDED BY SEPRES	######## ##	*******	######################################	82002 88	RECTORS SE		CMEVER	289	E#904	7986 1	6900 2	*2	42 X	**	91.	**
۰	21706457	80V80			Wet		PBUSH		VB191			5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2485	제무목했다서도 시기로서 중앙한 76-1	687843.0					OLMEN	33.284677
1	ITOMES	明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日本記念	net.		41		1984	овиол	28/85	Nes		5013010100103100003000000	組合物性利益 (数円数)	제후목일까지도 세계로서 중앙로 47명합 25	687814.0	6890.0	Nati	nan	NA	108.559015	33.348179
2	17172646	04/12/07/6/2			84		9878	009408	20/45			5011025824011090000000000865		제주되었지지도 자주시 변원을 반 원활성로 24	6950XL0					U6.254660	
3	20823990	804400	Hell		98440		000M/SD	FEMO	미선이에서	99470		5010230043430007064807	Neti	세우리에지치도 제주서 정본인다. 29	89080S.0	63802.0	Hatt	TMH.	Nes	106.474867	33.489079
4		21845					7/8/PIN'S 465H		846			schalasaaratiscaasorecos	MERNAN	제주제품자시도 제주의 서로로서급 다-2	690878.0					DL117916	
S row	s × 39 colum	•																			

#### 데이터 전처리

'시도명'을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열만 추출한다.

```
import pandas as pd

# 도서관 위치 데이터 있기
file_path = '/content/drive/MyDrive/bigdata_processing/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csv'
library_data = pd.read_csv(file_path, encoding='euc-kr')

library_data = library_data['시도영'].replace{{
    '전력복도': '정복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울특별자치도',
}

# 전처리된 캠과 확인
print(national_libraries['시도영'].u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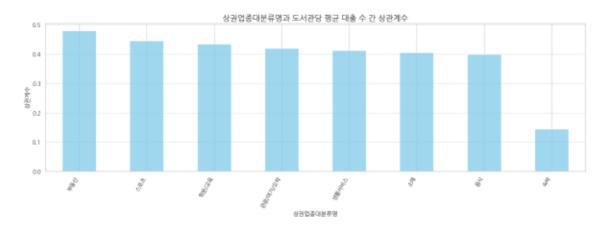
# 필요한 열한 추출
library_data = library_data[['도시관영', '시도명', '워도', '광도']]
print(library_data.head())

['경기도' '서울특별자' '전복특별자치도' '경상복도' '재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총청년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복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영 시도명 위도 경도
# 관고인생 경기도 37.398227 127.188622
1 하늘달템이 경기도 37.458186 127.112319
3 반마음청자 경기도 37.458186 127.112319
3 반마음청자 경기도 37.458186 127.112519
3 반마음청자 경기도 37.45828 127.112519
3 반마음청자 경기도 37.458186 127.112519
```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상권업종대분류명과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 간 상관계수를 계산해보았다.

'시도명','상권업종대분류명' 열만 필터링 한 후 , '시도명'과 '상권업종대분류명'으로 그룹화하고 발생 횟수(개수)를 계산한다. 행이 시도명, 열이 상권업종대분류명, 값이 상권 개수인 피벗 테이블을 생성한다. 두 데이터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병합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후 시각화 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숙박이 가장 적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 도서관 반경 1km 상권과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와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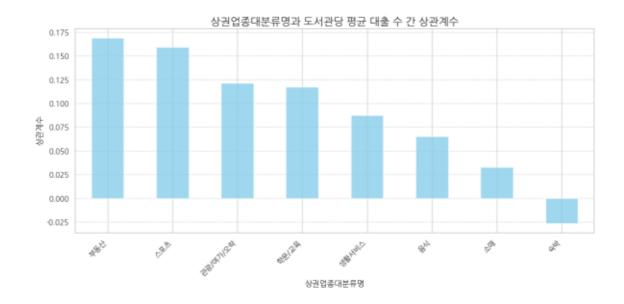
1. 도서관 데이터와 상권 데이터를 GeoDataFrame으로 변환하고, 도서관 반경 1km 버퍼를 준 뒤, 공간 조인으로 도서관 반경 1km 내 상권 데이터를 추출한다.

지역별 상권업종별 상권 개수를 집계한 뒤,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고,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 데이터와 병합한다. 상관 계수를 계산한 뒤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
import geopandas as gpd
from shapely-geometry import Point
# Step 1: 도서관 데이터를 GeoDataFrame으로 변환
library_gdf = gpd.GeoDataFrame(
    library_data,
geometry=gpd.points_from_xy(library_data['정도'], library_data['워도']),
# Step 2: 상권 데이터를 GeoDataFrame으로 변환
commerce_gdf = gpd.GeoDataFrame(
    commerce_data,
    geometry=gpd.points\_fron\_xy(commerce\_data['\exists \Xi'], commerce\_data['\exists \Xi']), crs='EPSG:4326'
# Step 3: 좌표제를 적합한 단위 (EPSG:3857)로 변경
library_gdf = library_gdf.to_crs(epsg=3857)
commerce_gdf = commerce_gdf.to_crs(epsg=3857)
# Step 4: 도서전 변경 1km 버리 성성
library_gdf['buffer'] = library_gdf.geometry.buffer(1000) # 1km = 1000m
# Step 5: 도서관 버퍼 GeoDataFrame 생성
buffer_gdf = gpd.GeoDataFrane(library_gdf[['buffer']], geometry='buffer', crs=library_gdf.crs)
filtered_commerce = gpd.sjoin(commerce_gdf, buffer_gdf, how='inner', predicate='intersects')
filtered_commerce = filtered_commerce[['상호명', '상권입중대본류명', '시도명', '위도', '경도']]
```

#### <1번 과정>

```
# Step 1: 지역 상존경험 상권 가수 집기
filtered_commerce_grouped = filtered_commerce.groupby(['시도형', '상권병증단본유형']).size().reset_index(name='성권 개수')
# Step 2: 파면 테이템 성성 (형: 지역, 항: 상관업증대문유형, 값: 성급 개수)
filtered_commerce_pivot = filtered_commerce_grouped.pivot(indexe'시도형', columnse'
# Step 3: 도시급한 평균 대충 수 데이터의 병원
# average_loans_per_library는 '지역' 형이 표현된 도시원당 평균 대충 수 데이터
# average_loans_per_library는 '지역' 함이 표현된 도시원당 평균 대충 수 데이터
# average_loans_per_library (columnse'(지역': '시도형'), implace=True)
# average_loans_per_library (columnse'(True)
# average_loans_per_library
```



상권업종과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 사이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동산(0.480), 스포츠(0.445), 학문/교육(0.434) 업종과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 사이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숙박업(0.145)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0.4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권 업종이 도서 대출 수와 관련이 있음을 시 사한다.

# 5. 지역별 도서관 한 곳당 평균 대출 수와 접근성과의 상관 관계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수집한 '2022년\_전국버스정류장 위치정보\_데이터.csv'를 활용한다. 분석에 필요한 위도와 경도 열만 추출한다.

```
import pandas as pd
import geopandas as gpd
from shapely.geometry import Point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import matplotlib.font_manager as fm
import seaborn as sns

# 한글 폰트 설정 (나눔고디 폰트 사용)
font_prop = fm.FontProperties(fname=font_path)
plt.rc('font', family=font_prop.get_name())
plt.rcParams['axes.unicode_minus'] = False # 대에서 부호 짜집 짱지

# 대에서 폰트
csv_path = '/content/drive/MyOrive/bigdata_processing/국토교통부_전국 버스정류장 위치정보
# CSV 파일 포트
station_data = pd.read_csv(csv_path, encoding='utf-8') # 인코딩 확인 필요

library_location = national_libraries[["위도", "갱도"]]
```

#### 데이터 시각화

도서관 데이터와 정류장 데이터를 GeoDataFrame으로 변환한 뒤, 도서관 반경 500m 버퍼를 생성한다. (정류장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마지노선을 500m로 선정하였다.). 공간 조인으로 도서관 반경 500m 정류장을 추출한다.

```
# 도서관 데이터 GeoDataFrame으로 변환
library_gdf = gpd.GeoDataFrame(
national_libraries, # 원본 데이터프레임
    geometry=gpd.points_from_xy(
       national_libraries['경도'], national_libraries['위도']
    crs='EPSG:4326' # WGS84 좌표계
# 정류장 데이터 GeoDataFrame으로 변환
station_gdf = gpd.GeoDataFrame(
   station_data,
    geometry=gpd.points_from_xy(station_data['경도'], station_data['위도']), # 정류장 경도, 위도
   crs='EPSG:4326' # WGS84 좌표계
library_gdf = library_gdf.to_crs(epsg=3857)
station_gdf = station_gdf.to_crs(epsg=3857)
library_gdf['buffer'] = library_gdf.geometry.buffer(500) # 500m 반경 생성
buffer_gdf = gpd.GeoDataFrame(library_gdf[['buffer', '시도명']], geometry='buffer', crs=library_gdf.crs)
# Step 5: 공간 조인으로 도서관 반경 500m 내 정류장 데이터 추출
filtered_station = gpd.sjoin(
                   # 정류장 데이터
    station_gdf,
    buffer_gdf,
   how='inner', # 도서관 버퍼 내에 포함된 정류장안 선택
predicate='intersects' # 정류장이 도서관 반경과 교차하는지 확인
# Step 6: 필터링된 데이터 확인
print(filtered_station.head()) # 도서관 반경 500m 내 정류장 데이터 출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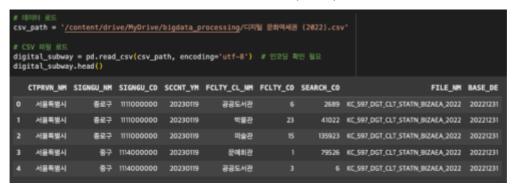


정류장 수가 많은 지역(예: 서울특별시, 경기도)은 도서관당 대출 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더라도 도서관 이용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통 접근성보다는 도서관 프로그램, 시설 수준 등의 요인이 대출률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 6. 디지털 역세권인지에 따른 도서 대출량

#### 데이터 수집

한국문화정보원이 공개한 디지털 문화역세권(2022).csv 데이터를 사용한다.



#### 데이터 전처리

열 이름이 영어로 되어있는 것을 한국어로 변환해준다.

```
digital_subway
# 새로운 열 이름 리스트
new_columns = ['시도영',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검색량년월', '시설분류명', '시설수', '라일명', '기준일자']
# 열 이름 변경
digital_subway.columns = new_columns
digital_subway.head()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검색량년월 시설분류명 시설수 검색수
                                                                              파일명 기준일자
                                               6 2689 KC_597_DGT_CLT_STATN_BIZAEA_2022 20221231
0 서울특별시 종로구 1111000000 20230119 공공도서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1111000000 20230119
                                       박물관
                                               23 41022 KC_597_DGT_CLT_STATN_BIZAEA_2022 20221231
2 서울특별시
                                               15 135923 KC_597_DGT_CLT_STATN_BIZAEA_2022 20221231
           좆로구 1111000000 20230119
                                       미술관
              중구 1114000000 20230119 문예회관
                                               1 79526 KC_597_DGT_CLT_STATN_BIZAEA_2022 20221231
4 서울특별시
              중구 1114000000 20230119 공공도서관
                                                      6 KC_597_DGT_CLT_STATN_BIZAEA_2022 20221231
```

groupby를 이용해 시도명별 문화 시설 수의 합계를 계산한다.

```
# 시도명별 시설수 함께 개산
cultural_facilities_count_per_city = digital_subway.groupby('시도영')['시설수'].sum

# 경화 확인
print(cultural_facilities_count_per_city)

시도영 사설수

# 경험도 117

# 경기도 328

# 경상체도 118

# 경우병에서 38

# 대구현에서 38

# 대구현에서 52

# 대전형에서 31

# 구산명에서 63

# 서울째까지서 11

# 삼산병에서 11

# 삼산병에서 66

# 전원에서 66

# 전원에서도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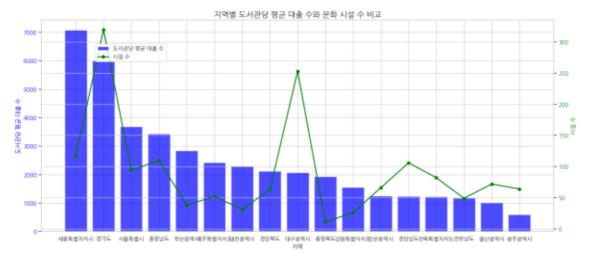
# 전원에도 186

# 전용에서도 49

# 전용에서도 49
```

#### 데이터 시각화

시도명별 시설수의 합계와 지역별 도서관당 평균 대출수를 막대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다.



디지털 역세권인지와 접근성이 좋은지에 따른 시각화 결과가 비슷하게 나옴을 알수 있다. 두 요인은 도서 대출량보다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듯하다. (지역 문화시설이 많을수록 정류장 수가 많다.)



#### 결론

#### 가설 1. 도서관의 수와 도서 대출 수는 비례할 것이다.

도서관 수와 도서 대출 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완전한 비례 관계는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가장 적은 도서관 수(24개)를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는 가장 높다(7,080권).

가설 2. 도서 대출 수는 학원 같은 교육 시설 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상권업종과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 사이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업 데이터 특성상 주거공간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높은 이유에는 주거공간이 근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가 많은 이유는 도서관과 함께 스포츠 공간이 또 하나의 취미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학업이 뒤이은다. 그와 반대로 숙박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가설 3. 문화시설 수가 많은 곳일 수록 도서 대출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접근성이 높을 수록 도서 대출 수가 높을 것이다.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문회시설의 수와 접근성이 더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 았다.

#### 도서관 접근성 관련

- 1. 도서관 수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 수가 적더라도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도서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략적으 로 도서관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도서관 위치 최적화: 상권 데이터와 도서관 위치를 분석하여 접근성이 높은 곳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0.480), 스포츠(0.445), 학문/교육 (0.434) 업종과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업종이 밀집한 지역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도서관 서비스 개선

- 1. 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평일, 토요일, 공휴일 운영 시간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2. 열람 좌석 수 증대

도서관의 열람 좌석 수를 늘려 더 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상권과 연계한 독서 문화 조성

- 1. 복합 문화 공간 조성
  - 상권업종 중 '관광/여가/오락'이 도서관당 평균 대출 수와 양의 상관관계(0.420)를 보였고,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이 도서 대출 수가 많은 모습을 보였다.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 2. 교육 시설과의 연계

학문/교육 업종과의 상관관계(0.434)를 고려하여, 학교나 학원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서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들은 쉽지 않다. 성인들을 위해 지역 문화센터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노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출처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8001

-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4.10.07.), 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

https://www.kfta.or.kr/usr/wap/detail.do?app=16527&seq=270000370496

- 중앙일보. (2022년 12월 5일). '심심한 사과' '사흘' 문해력 논란…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031
-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도담: 도서관 빅데이터를 담다』 제1호 발간, 2022-06-29, 빅데이터 정보나루 https://www.data4library.kr/noticeV
- 문화 체육 관광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921&pDataCD=04060000 00&pType=04-